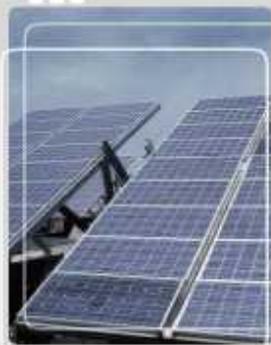


# 떠오르는 신흥공업국, 베트남



## 목 차

### 요 약 / 1

---

#### I. 제조업 현황 / 2

---

1. 총론
2. 최근 동향
3. 경제적 효과

#### II. 제조업 경쟁우위 요소 / 8

---

1. 노동력 부분
2. 기타 특성 요소

#### III. 제조업 대표 분야 / 10

---

1. 섬유 산업
2. 자동차 산업
3. 전자 산업

#### IV. 우리기업 진출전략 / 22

---

1. 제조업 향후 전망
2. 베트남 정부 정책 방향
3. 우리기업 전략

## 요 약

- '90년대 베트남 개방 이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국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 일본의 對 베트남 투자를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음
  - 중국 위안화 절상과 생산 비용 증대 등으로 중국산 제품의 매력에 점차 감소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지 다변화 등을 추진 중인 바, 이로 인한 베트남의 수혜도 예상
  - '10년 현재 베트남의 제조업은 국영기업 19.1%, 민간기업 38.9%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42.0%로 구성
  
- 제조업 경쟁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여 노동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모색
  - 주요 거대 경제권과 인접하며 개도국 유일의 FTA 허브
    - 베트남 북부는 중국과 접하고 있으며, 인도차이나 동부 국가로 동남아 관문국
  
- 섬유산업, 자동차 산업과 전자산업이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임
  -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부품의 해외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및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
  -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자산업 고도화에 따른 저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베트남의 전자산업은 태동 단계임
  
-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패턴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용 부품 생산 지출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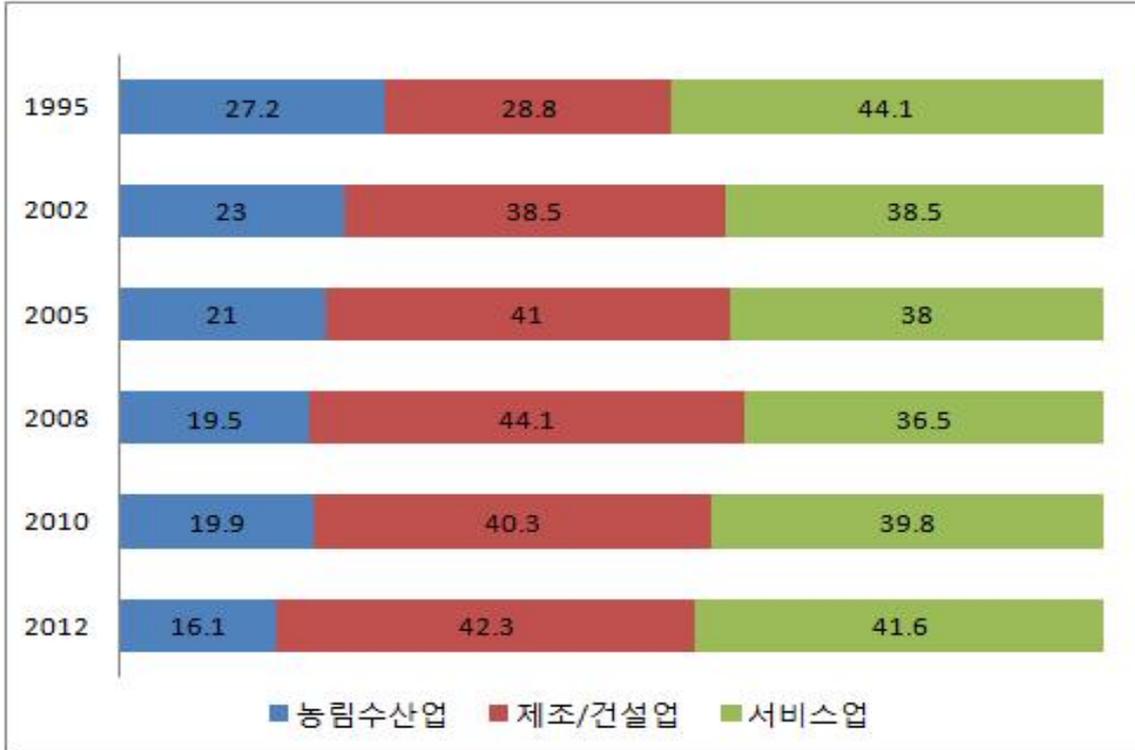
## I. 제조업 현황

### 1. 총론

- 베트남은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산업을 육성하였으나 여전히 농업 비중이 높은 구조
  - '12년 현재 베트남의 산업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1%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42.3%, 41.6% 차지
  - '08년 WTO 가입 이전까지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가입 이후 서비스 산업 비중 확대
  - '10~'12년간 베트남 GDP에서 농업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 비중이 2% 포인트 증가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투자 진출이 주원인으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베트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 이상을 차지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는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대만의 투자 패턴도 대기업 중심, 협력업체 진출로 변화하고 있어 베트남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90년대 베트남 개방 이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국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한국, 대만의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 집약 산업 투자를 적극 유치
  - '80년대 동남아 국가에 투자 진출하여 제조업 분업 체계를 확립한 일본도 '00년대 이후 베트남에 자동차, 전자 산업 등 진출
  - 한편, 민간 기업이 취약한 베트남은 제조업 전 분야에 국영기업을 설립하여 내수 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활동을 전개

- '10년 현재 베트남의 제조업은 국영기업 19.1%, 민간기업 38.9%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42.0%로 구성

< 최근 산업별 베트남 GDP 구성 추이 >



자료: 베트남 통계청

## 2. 최근 동향

- '12년 베트남에 투자(신고)한 국가는 총 98개국이었으며, 14,489개의 프로젝트가 승인
  - 베트남은 지난해 동안 1,100건의 신규 프로젝트, 435건의 증자로 130억 달러를 유치하였으나 전년대비 약 15.3% 감소하였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총투자 규모는 약 2,136억 달러
  - 일본은 13.6%에 해당하는 291억 4,6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

- 우리나라는 누적 프로젝트에서 3,186건으로 최다 프로젝트 투자국이나 규모는 약 247억 9,500만 달러로 제3위 투자국

< 주요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12.12월) >

(단위 : 건, US\$십억)

투자국	프로젝트 수	총 투자금액
일 본	1,827	29,146
대 만	2,268	26,428
한 국	3,186	24,795
싱가포르	1,099	24,671
버진아일랜드	522	16,032
홍 콩	700	11,996
말레이시아	433	11,368
미 국	639	10,468
케이먼군도	54	7,506
태 국	298	6,006

자료 : Foreign Investment Agency / 주 : 신고기준

- 베트남 정부가 부품 소재 산업 및 IT 부문의 투자 유치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베트남으로 투자는 여전히 노동집약형 투자 비중이 높음
  - 베트남의 주요 수출 시장인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와 자국산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주의 대두는 베트남 투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
  - 최근 2년간 이루어진 높은 수준의 최저 임금 인상 역시 투자자들이 베트남 투자를 주저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
- 고급 프로젝트 투자 유치 부진에 따른 베트남 투자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베트남 정부는 현행 지방 차지 정부의 투자 유치 권한을 다소 제한하고 중앙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 현행 규정으로 외국의 고급 기술 보유 기업이 베트남에서 IT 기술 인성 프로젝트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받고 추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는 등 이러한 제도개선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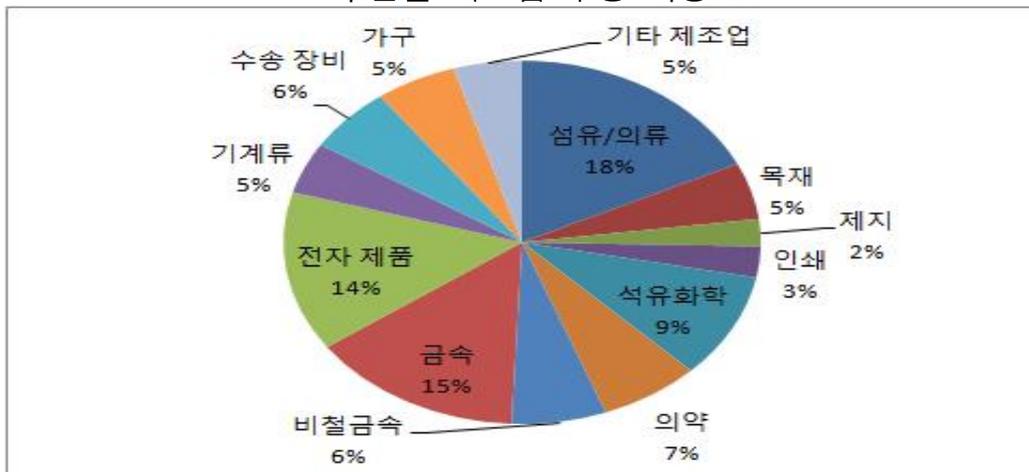
-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베트남이 농업 현대화를 위한 외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투자자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
  - 베트남의 전력, 상수도 시스템은 대도시와 공단 지역에 집중
- 현재 낮은 수준의 비숙련 노동력 해결 문제도 급선무이나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인바, 정부 주도의 숙련공 양성 프로그램 추진도 예상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는 노동 집약 산업 비중이 높은 상황이어서 베트남 투자환경 변화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어려울 것이나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IT, 소프트웨어, 부품 산업 등의 진출은 향후 베트남 정부의 제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 3. 경제적 효과

- 신흥 공업국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에 제조업 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 베트남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서 전세계 다국적 기업 및 투자가로부터 주목
  - '00년대까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국인 베트남의 제조업은 한국과 일본의 투자로 인해 점차 고도화로 이행 중이며, 특히 전자산업은 베트남의 대표적 제조업으로 부상
  - 베트남의 임금 상승과 생산성 저하로 인해 투자 매력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섬유 산업도 TPP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추진 중에 있어 제2의 도약 계기 마련
  - 따라서 베트남은 노동집약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로 부상 중

- 부문별 제조업 구성 비중을 보면, '12년까지 최대 수출 품목인 섬유·의류가 약 18%를 차지
- 일본, 한국, 대만 등의 관련 산업 진출 증가로 금속과 전자 제품이 각각 15%, 14% 차지
- 베트남 국영기업의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부문이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 부문도 7% 수준
- 베트남 수출에서 비중이 높은 가구와 목재도 각각 5%를 차지하였으나 '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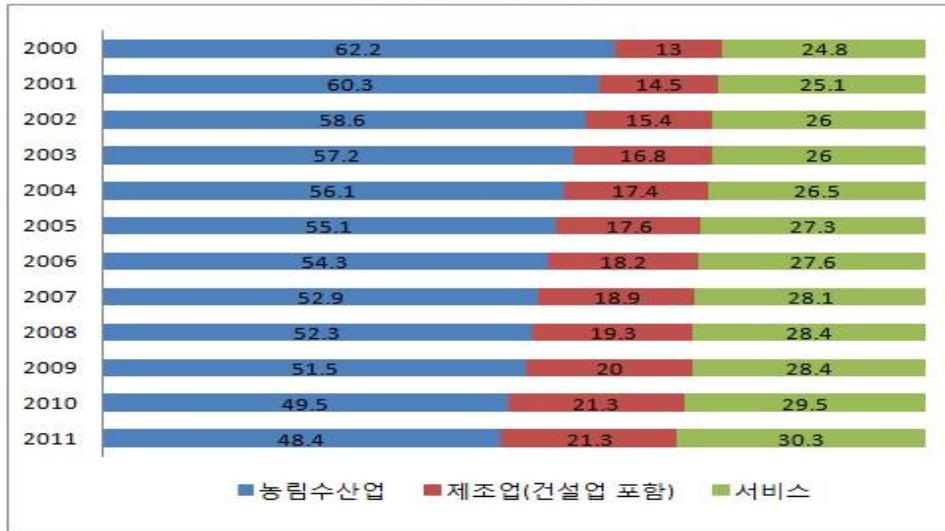
< 부문별 제조업 구성 비중 >



자료 : 베트남 통계청

- 산업별 고용 비중을 보면, '00년 이후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1차 산업이 제조업의 주요 인력 공급원
- '11년 현재 베트남의 산업별 고용 비중은 1차 산업이 48.4%, 제조업 21.3% 그리고 서비스업이 30.3%를 차지
- 그러나 제조업에서 건설 부문을 제외하면, 고용 비중은 15%에 불과하나 향후 대규모 투자 증가로 제조업 고용 비중은 지속 증가 예상

< 산업별 고용 비중 >



자료 : 베트남 통계청

## II. 제조업 경쟁우위 요소

### 1. 노동력 부분

- 베트남은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여 섬유, 의류 및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모색
  -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과 부족한 숙련 노동자수는 고부가가치 외자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속성장을 추진하는 베트남 정부로서 해결해야할 과제
  - 베트남 정부는 '15년까지 현재의 노동생산성을 1.5배 향상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의 베트남 고용 구조, 노동력 구성을 볼 때 쉽지 않을 전망
  - 베트남의 都農간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농촌 인구의 도시유입 현상으로 제조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이어서 노동환경 개선도 기대 이하
  - 베트남 노동시장의 고비용 저효율 생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숙련 노동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기업들도 연구개발 등의 투자에 관심 필요

### 2. 기타 특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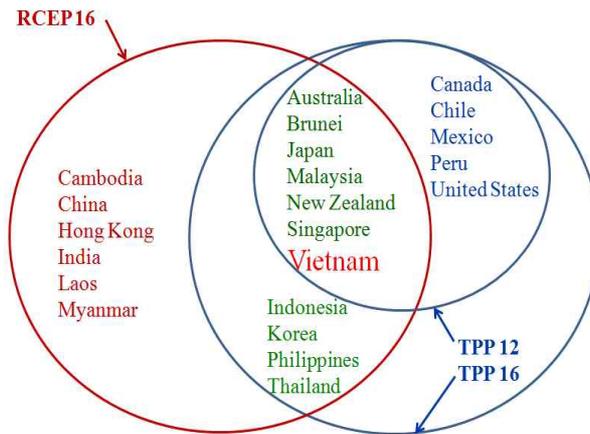
- 주요 거대 경제권과 인접(National Priority Region)
  - 베트남 북부는 중국과 접하고 있으며, 인도차이나 동부 국가로 동남아 관문국

- 하노이는 4시간 비행 거리에 중국의 베이징, 상해, 광저우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홍콩, 대만에 닿을 수 있음

□ 개도국 유일의 FTA 허브

- 베트남은 '06년 WTO 가입으로 세계경제 제도권 편입의 역사가 일천하나 최근 거대 경제권과 FTA 협상을 진행
- 베트남이 추진 중인 FTA는 미국, 일본이 포함된 TPP,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이 참여하는 RCEP 그리고 EU와 협상을 진행 중
- 현재 발효 중인 다자 FTA는 AFTA, 중-ASEAN, ASEAN-ANZ 등
- 양자 FTA로서 '09년에 일본과 FTA인 EPA가 발효 중이며, 한국과는 내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
- 기타 러시아, 칠레와도 양자간 FTA 검토 중

< 베트남 참여 다자 무역협정 >



### Ⅲ. 제조업 대표 분야

#### 1. 섬유 산업

##### □ 생산현황

- 베트남의 섬유·의류산업은 GDP의 약 8%를 차지하고 베트남 총 고용의 약 5%에 해당하는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연간 150억 달러를 수출하여 베트남 총수출의 약 13%를 차지(2012년)하는 주력산업
  - '90년대 경제문호 개방,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따른 최혜국 지위 획득, '07년 WTO 가입, 정부지원 등으로 베트남 최대 산업으로 성장
  -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 지리적 근접성으로 한국, 대만, 일본계 섬유 기업이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
  - WTO 가입 이후 미국/EU 수입쿼터 해제로 수출이 증가, 세계 10대 섬유 수출국 부상
  
- '09년 말 현재, 베트남 섬유·의류기업은 총 3,700여개 사로 남부지역에 전체 62%의 기업이 소재하고 하노이 인근 북부가 30%, 중부 8% 소재
  - 자본별로 베트남 섬유·의류공사(Vinatex)를 포함한 국영기업이 0.5%, 외국인투자기업이 18.5%, 나머지는 합작기업
  
-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STAS)에 따르면, 베트남내 섬유·의류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28개국 총 32억 달러 규모
  - 대만은 베트남 최대 섬유·의류 투자국으로 약 19억 달러 투자(누적기준)
  - 제2위 섬유 투자국인 한국은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홍콩과 일본이 각 1억 달러, 독일이 9천만 달러 투자

- 베트남의 섬유·의류 산업 수출은 '00.7월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본격적인 호황기에 접어들어 매년 2-30%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베트남 경제의 최대 외화기득 산업으로 부상
- '10년 베트남 최초의 100억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12년에는 150억 달러 이상 실적

<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수출 추이 >

(단위: US\$백만,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6월)
수출액	4,386	4,838	5,854	7,732	9,124	9,004	11,172	14,043	15,035	7,980
전년대비 증가율	22.7	7.7	22.7	32.1	18.0	-1.3	22.3	25.7	7.1	16.8

자료 : 베트남 산업무역부

□ 무역 및 투자 장벽

-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외국인에 개방도가 높은 산업이나 최근 同 산업에 대한 투자 포화, 정부의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정책, 기타 요인으로 투자 장벽 발생
  - 단독 법인 설립시 물류 창고 운영 의무화 및 환경오염 유발 억제 설비 운영
- 국내시장
  - 베트남의 의류 품목에 대한 최혜국 관세는 20%로, 한-ASEAN FTA 적용 관세와 동일
  - 중-ASEAN FTA 적용시 15%, 일-베트남 EPA 적용시 14% 관세
  - 베트남 국내 의류 시장 지배구조는 베트남산과 중국산이 양분하고 있으며, 중국산 의류 제품의 밀수도 증가
  - 원부자재 관세는 20~40%이나 수출용은 관세 환급 제도 운영

○ 수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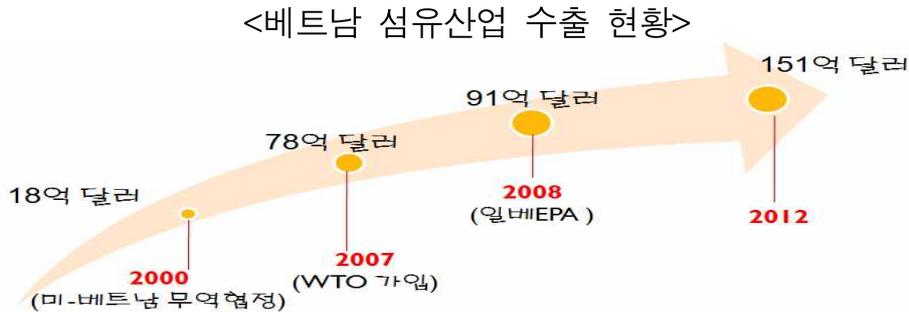
- 최대 시장은 미국으로 베트남 섬유수출의 약 55% 차지
- EU는 제2의 수출시장이며, '09.10월, 일본과 EPA 체결 이후 섬유류 무관세 적용, 베트남의 對日 섬유 수출 비중은 약 10%이며, 對한국 수출 비중은 3.5%차지

□ 베트남 섬유 산업 전망

- 베트남은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여 최적의 섬유산업 투자 대상지였으나 생산비용 증가와 기술발전 지체로 경쟁력 저하 우려
  - 베트남에서 섬유·의류 산업의 원부자재 조달비율은 약 30~40%이며, 신발은 약 40~50% 수준
  - 직물의 생산비율은 약 20~30%, 면화는 약 10% 수준이며, 섬유(fiber)는 100% 수입에 의존
  - 유일하게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부자재는 방적사(yarn)이나 공급이 국내 수요에 못 미침
  - 베트남 정부의 산업군의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특혜도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중단
  - 섬유·의류 산업의 생산은 다국적기업의 OEM 방식으로서 대부분 주문 생산
  - 따라서 국내의 부품 소재 생산 기업들도 불안정한 수익성으로 인해 생산설비에 투자를 기피하여 기술적 진보가 미미
-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력 고용산업으로 외자기업 중심이었으나 '08년 이후 급속한 임금인상 진행
  - 베트남의 고물가 기조로 인해 섬유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 요구 파업 증가

- '11년 최저 임금 14% 인상하였으나 생산성은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투자유치 저해 주요 요인

## □ 베트남의 TPP 협상 참여로 섬유산업 제2의 도약기 기대



- '00년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 후 베트남의 섬유 산업은 '07년 WTO 가입과 기타 FTA를 통해 수출을 확대
  - '07년 WTO 가입은 베트남의 섬유 수출 및 투자 유치 호기로 작용 이후 5년간 섬유 수출 규모는 두배 증가
  -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TPP) 발효 시 최대 수혜국과 산업은 베트남의 섬유·의류 부문이라는 평가
- TPP는 '15년에 발효될 예정이나 베트남 정부는 안포워드 규정에 적용에 대비해 원부자재 산업 육성과 관련 부문 투자유치를 모색

\* 안 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은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직물의 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인 '실'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

- '12년부터 베트남의 TPP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 기업도 베트남 섬유부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베트남 기업들은 베트남의 취약 부문이인 방직과 염색 가공 설비 확보를 추진

- 호주, 일본 등 TPP 참여 및 참여 예정국은 물론 홍콩, 중국 등 역외 기업들도 베트남에 투자 검토
  -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례로 호주의 Lenzing社가 Vinatex와 비스코스 생산을 위한 협의가 있었고, 중국의 Huafu社, 일본의 Marubeni社도 이와 유사한 투자 계획 수립 중
  - 베트남 Thien Nam Investment and Development社는 중국의 Sunrise Textile과 합자회사 설립하여 연간 100만톤 규모의 부직포와 300톤 규모의 니트를 생산할 계획
  - 그 밖에 홍콩의 Texhong Ngan Long Sci-Tech사는 베트남 동북부 Quang Ninh省 Hai Yen 공단에 원사 생산 설비를 건립 중에 있고 일본의 Itochu 상사도 Vinatex와 공동으로 Nam Dinh省에 1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원사 생산 공장 설립을 결정
- 베트남은 물론 외국계 섬유기업들은 완전 개방을 조건으로 TPP 발효 시 베트남은 섬유·의류 수출의 수혜가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베트남의 섬유산업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미국의 주장대로 협상에서 안포워드를 적용하면 베트남 섬유 의류의 對美 수출 효과는 미미
  -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계 섬유 기업들은 역외로부터 원부자재 수입 의존 비중이 절대적이며 베트남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제품의 품질이 낮고 환경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
  - TPP 참여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조달선을 변경할 경우, 미국이 대안으로 제시되나 가격과 물류 비용이 증가하여 가격 경쟁력이 낮아짐
  - '15년 발효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경우 시한이 촉박한바, 섬유 의류를 제외한 TPP 출범과 後협상 추진, 혹은 원사를 제외한 공정부터 원산지로 인정해 주는 제한적 안포워드 적용의 가능성도 적지 않음

## 2. 자동차 산업

### □ 산업 개관

- 베트남의 자동차 산업은 개방과 함께 일본 자동차 브랜드 진출을 통해 성장
  - '98.9월 베트남 최초의 자동차 조립 투자 허가가 일본의 Isuzu社에 발급된 이후 베트남은 자동차 조립 및 오토바이 생산국으로 변모하였으나 발전단계는 여전히 초기단계
  - 베트남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인 Toyota, Honda, Ford 등 17개 자동차 메이커가 조립공장 운영
-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은 '03년 이후 수입차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06년 이후 중고차(차령 5년 이하) 수입 본격화
  - 당시 베트남에는 100만대 이상의 중고차량이 수입되었는데, 1992년 개방 이전 자동차는 정부소유였으며, 개인소유 차량은 '00년 이후 급속히 증가
  - '13년 1분기 현재 베트남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만 3,000여대
  - 오토바이 등록은 약 370만대로 여전히 베트남 교통수단의 중심이나 공해, 교통 체증 등의 이유로 최근 등록 규제
-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의 특징은 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완성차에 대해 고관세 정책을 유지
  - 관세 이외 예도 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40~60%)가 부과되어 베트남의 차량가격은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약 1.5배 수준
  - 베트남자동차생산협회(VAMA)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자동차 소유 비율은 인구 1,000명당 11대로 2007년의 중국 24대, 태국 152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베트남은 일인당 소득이 1,500달러 수준의 저소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07년부터 자동차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
- '09년까지 수입차 판매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환율과 물가 불안, 경기 침체로 인해 '12년까지 감소세
  - 한국산 차량의 수입은 3억 달러로 전체 수입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일본산 차량의 수입은 1억 6,000만 달러임
  - 기타 중국산과 미국산이 각각 1억 5,000만 달러, 9,000만 달러 기록
  - 베트남에서 OEM으로 제작되는 Toyota는 브랜드, 품질, 가격의 우수성으로 인해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10년 약 20%의 시장점유율 기록
  - 베트남 대표적 자동차 기업 Vinaxuki는 중국 모델을 도입, 현지 생산하여 낮은 가격대의 차량을 생산 및 판매

## □ 생산 구조

- 베트남 자동차산업은 일본 투자기업에 의해 주도
  - '95년 베트남의 개방으로 Toyota가 최초로 투자 진출, 현재 7개 일본 자동차 기업 진출, CKD 방식으로 생산
  - '05년 BMW 생산라인 폐쇄 이후 유럽계 자동차 제조 기업은 Mercedes Benz가 유일하나 미니버스에 한정되어 있으며, 생산규모는 연간 4,000대 수준
  - BMW 폐쇄에 이어 일본계 Daihatsu도 '07년 생산라인을 폐쇄하였으나 BMW는 자동차 수입면허를 취득하여 베트남 자동차 시장 공략
  -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Mercedes와 Toyota는 완성차 수입면허도 취득
  - Toyota의 5인승 차량 Vios, 7인승 Innova의 판매 실적이 높으며, 1.8L급 Altis와 SUV Fortuner도 인기

- Trung Hai는 한국의 기아자동차 Morning을 조립·판매하는데, 일반인 및 택시회사에 판매
  - 과거 한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베트남에 진출하였던 대우자동차는 현재 Chevolet 브랜드로 Lacetti, Spark를 조립판매하고 있으며, Vinamotor는 현대의 Porter를 조립
- '11년 현재 베트남 내 70여개의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 운영 중
- 자동차당 부품이 2만~3만개 정도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영세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자동차 부품의 현지 부품조달 비율이 매우 낮은 편
  - 베트남에서 제작된 자동차가 베트남 제품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부품 조달 비율이 40% 수준이 되어야 하나 현재 약 6%에 불과
  - 예를 들어 Toyota Vietnam은 현재 11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조달받고 있는데, 단순 플라스틱 부품, 고무 제품, 전지, 전선 등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
-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자동차 조립산업에 대형 투자를 유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자 '10년까지 현지 부품 조달 비중 증가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였으나 여전히 부품의 해외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
- 베트남의 자동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입수요는 최소 '2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및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
-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부품소재 산업 육성계획(Planning on the development of Vietnam's Supporting industry to 2010 with vision 2020)에 의하면, '20년까지 베트남에서 조립되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 조달 비율을 최대 95%까지 확대 목표

- 자동차 부품의 경우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운전석 및 실내, 프레임, 타이어, 기어박스, 운항 시스템 및 엔진 등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핵심 부품의 국내 부품 조달 비율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베트남의 자동차 부품 현지 조달 목표 >

부 품	비 중	
	국내 부품	수입 부품
트럭 상부	70~95%	5~30%
트럭 프레임	90~95%	5~10%
승용차 프레임	80~90%	10~20%
엔진	50~60%	40~50%
기어박스	60~75%	25~40%
동력 축	60~65%	35~40%
타이어	70~80%	20~30%

자료 : 베트남 통상산업부

< 베트남 자동차 기업의 현지 부품 조달율 현황 >

(단위 : %)

	기업명	생산 차종	현지부품조달비율
합작 회사	Toyota Vietnam	승용차, 미니버스	15~25
	Ford Vietnam	승용차, 소형트럭, 미니버스	7
	Mitsubishi Vietnam	승용차, 트럭	10~14
	Isuzu Vietnam	승용차, 트럭, 소형트럭	12
	Vietnam Suzuki	승용차, 트럭, 밴	10
	GM Vietnam	승용차, 버스	8
	Mercedez-Benz Vietnam	승용차, 미니버스	1.5
	Honda Vietnam	승용차	23
	VMC	승용차, 트럭	12
	Hino Vietnam	트럭	2
	Mekong	승용차, 트럭, 미니버스	4.6
베트남 기업	Samco	트럭, 버스	40
	Vinamotor	트럭, 버스	40
	Veam	트럭, 버스	40
	Vinacomin	버스	35
	Vinaxuki	트럭, 버스	60
	Truong Hai	트럭, 버스	40

자료 : VAMA

< 베트남내 자동차 생산 기업 >



### 3. 전자 산업

#### □ 산업 개관

- 동아시아(한국, 대만, 일본) 국가들의 전자산업 고도화에 따른 저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베트남의 전자산업은 태동 단계임
  -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전자 제품은 백색가전, 사용용 기기 및 정보통신 기기가 주류
  - 최근 삼성전자와 NOKIA의 대규모 투자로 베트남은 휴대전화 생산 중심국가로 부상 중
- 과거 베트남의 전자제품 생산은 공기업이 부품을 수입, 단순 조립하여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이었으나 '90년대 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진출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 '00-'12년까지 베트남 내 전자제품 생산기업은 약 300여개이며, 고용규모는 약 24만여 명으로 섬유·봉제 산업과 함께 베트남의 중심산업으로 성장

- 주요 생산제품은 TV, 카세트, 라디오, VCR, DVD, 세탁기 및 에어컨 등 단순 조립형 가정용 전자제품
- 베트남은 전자제품 관련 550개의 관세 품목이 있는데 수출용도 부품은 10% 이하의 저율의 관세가 적용되나 베트남내 생산가능 품목은 40%대의 높은 관세 적용
  - 컴퓨터 및 부품품의 최혜국 관세는 10% 이나 '12년 이후 철폐
  - 모발 건조기, 전기밥솥, 커피메이커 등 소형 가전의 최혜국 관세는 40%이나 한-ASEAN FTA 관세인하 계획에 의거 '15년 이후 철폐
  - 세탁기는 50% 최혜국 관세 부과, 한-ASEAN FTA 관세인하 계획에 의거 '15년 이후 철폐 예정
- 베트남 정부는 전자산업의 투자유치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증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련 부품산업 육성도 추진 중
  - 대도시 인근 투자허가 및 세금과 토지임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

## □ 무역 및 투자 장벽

- 베트남은 전자제품 관련 550개의 관세 품목이 있는데 수출용도 부품은 10% 이하의 저율의 관세가 적용되나 베트남내 생산가능 품목은 40%대의 높은 관세 적용
  - 컴퓨터 및 부품품의 최혜국 관세는 10% 이나 '12년 이후 철폐
  - 모발 건조기, 전기밥솥, 커피메이커 등 소형 가전의 최혜국 관세는 40%이나 한-ASEAN FTA 관세인하 계획에 의거 '15년 이후 철폐
  - 세탁기는 50% 최혜국 관세 부과, 한-ASEAN FTA 관세인하 계획에 의거 '15년 이후 철폐 예정

- 베트남 정부는 전자산업의 투자유치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증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련 부품산업 육성도 추진 중
  - 대도시 인근 투자허가 및 세금과 토지임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

## □ 베트남 전자산업 전망

- 베트남은 전자 산업의 수출 기지 및 잠재성 높은 내수 시장으로서 지속 성장 전망
  - '07년 WTO 가입 이후 베트남산 소형 가전의 對세계 수출은 연평균 20%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투자증가와 베트남 국민들의 소득 증가에 따른 고급 전자제품 수입도 증가세
  - '07년 이후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 Intel, Foxconn, Canon, Neidec, Meikon 등으로 베트남 고용 및 수출증대에 기여
  - LG 전자도 베트남 북부 하이퐁 지역에 백색가전 생산 설비 진출 확정되어 베트남의 생산 전자제품 다양화
  - 그러나 말레이시아 등 기타 동남아 선발 전자 공업국에 비해 여전히 노동 의존도가 높고 국내 부품 공급망이 열악
  - 향후 경제안정과 고급 유통망 설립, 개방 확대 등의 요인은 전자제품이 베트남 소비시장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베트남 최대 투자기업 :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 2012년 현재 총 투자 규모 : 13억 달러
- 2012년 수출 규모 : 126억 달러(내수 3% 미만)
  - \* 2013년 1~5월 현재 : 90억 달러 수출
  - \* 2012년 베트남 최대 기업으로 부상
- 주요 생산 품목 : 스마트폰(Galaxy S4, NoteII 등)
- 생산규모 : 1,200만대/월
- 고용 규모 : 36,000여명
- Thai Nguyen 제2공장 투자 규모 : 20억 달러
  - \* 협력업체 투자 규모 약 17억 달러

## IV. 우리기업 진출전략

### 1. 제조업 향후 전망

- 과거 노동집약 산업 중심이었던 베트남의 제조업은 '10년 이후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로 고부가가치화
  - 최근 베트남 노동 인력의 임금이 상승세에 있으나 여전히 투자가들에 매력도가 높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요인
- 베트남은 TPP, EU, RCEP 및 한국 등 거대 경제권과 FTA 협상 중에 있어 제조업 수출 잠재성 및 발전 가능성이 더욱 확대된 상태
  - 주력 산업인 섬유와 전자 제품은 물론 현지 기업들의 자동차의 ASEAN 역내 수출도 기대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기타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 진출도 검토 중이어서 베트남의 제조업 스펙트럼이 더욱 다양화

### 2. 베트남 정부 정책 방향

- 베트남 정부는 부품 산업 지원, 브랜드 육성 및 고부가 수출 상품 개발을 위한 제조업 발전을 희망
  - 여전히 낮은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R&D 지원,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추진
  - 고급 기술을 보유한 투자기업은 대도시 인근에 유치 유도하고 세제 및 임차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 한국의 대기업 진출에 따른 협력사 진출시 기술 전수 모색

### 3. 우리기업 전략

- 최근 2년간 고물가와 임금 상승으로 노동력 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제조업 기업들은 베트남 투자 매력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신규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주목해야함
  - 중국 위안화 절상과 생산 비용 증대 등으로 중국산 제품의 매력력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지 다변화 등을 추진 중인바, 이로 인한 베트남의 수혜도 예상
  - 지난해 이후 중국 위안화는 약 5.6% 절상된데 반해, 베트남 동화는 약 10% 절하되어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
  - 삼성전자 진출 이후 노동 집약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對베트남 투자 패턴을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ASEAN 단일 시장 출범, 베트남-EU FTA 및 TPP 등 거대 시장에 급속히 편입하고 있는 베트남을 통해 세계 시장 공략 모색
  
-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패턴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용 부품 생산 진출이 바람직
  - 협상력이 높은 대기업과의 협력 진출은 공단 부지 확보, 인센티브 등에 유리한 요인
  - 그러나 투자기업이 처하는 애로 요인은 숙련공 비중이 낮다는 점인데, 노동력을 우선 확보하고 교육 후 생산 투입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완제품 수출시 구매력 높은 고급 유통망을 우선적으로 고려
  - 부품 수출은 공기업, 수출기업을 대상 바이어 발굴 모색

## 2013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3.1
13-002	2013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
13-00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	2013.1
13-00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골프용품 -	2013.1
13-005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안경테 -	2013.1
13-00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에스터 단섬유 -	2013.1
13-00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프로필렌 테이프 -	2013.1
13-008	선진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2013.2
13-00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광케이블 -	2013.2
13-01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전동공구 -	2013.2
13-01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컴퓨터주변기기 -	2013.2
13-01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펌프 -	2013.2
13-013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2013.2
13-014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2013.2
13-015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설장을 선점하라	2013.2
13-016	주요국 환율변동에 따른 해외시장 동향과 진출여건	2013.2
13-017	엔저하의 수출 경쟁력 현황 및 전망	2013.2
13-018	한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2013.3
13-019	일본의 대인도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2013.3
13-020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주요 시장 동향 <기타 무선통신기기>	2013.3
13-02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플라스틱 가공제품 -	2013.3
13-02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편직물 (인조섬유제) -	2013.3
13-024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하는 멕시코	2013.3
13-025	인도의 CSR 정책과 시사점	2013.3
13-02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유리 저장 용기 -	2013.3
13-027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2013.3
13-028	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9	2013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4
13-03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X선 및 방사선기기부품 >	2013.4
13-03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초화장품 -	2013.4
13-03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합성수지·합성고무 -	2013.4
13-03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밸브·기타기계류 -	2013.4
13-03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스키 헬멧>	2013.4
13-035	Post Chavez, 변화와 전망	2013.4
13-036	2013년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2013.4
13-037	한·터키 FTA 10대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3.4
13-038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2013.4
13-039	Putin 취임 1주년 경제 진단 및 전망	2013.5
13-040	유럽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 서유럽편 -	2013.5
13-041	유럽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 동유럽·북유럽편 -	2013.5
13-042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1년과 향후 전망	2013.5
13-043	핀란드 창업·재취업 프로그램 현황 및 시사점	2013.5
13-044	日 엔고극복 사례가 주는 엔저원고시대의 시사점	2013.5
13-045	CIS 대형 유통망 현황 및 진출 방안	2013.6
13-046	기업에 공유가치를 입혀라~창조경제를 만든 해외기업의 CSV 사례~	2013.6
13-047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사업환경 변화와 시사점	2013.6
13-048	호주 자원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2013.6
13-049	2013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6
13-050	한-EU FTA 2주년 성공사례 및 주요 바이어 반응조사	2013.6
13-051	2013년 하반기 지역별 수출입 전망과 시장여건	2013.7
13-052	북미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한국기업 진출전략	2013.7
13-053	'Rich Africa, Blue Africa' - 경제통상 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방안	2013.8
13-054	북미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방안 - 미국편 -	2013.9
13-055	북미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방안 - 캐나다편 -	2013.9
13-056	독일 메르켈 총리 재집권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2013.9
13-057	태평양동맹 현황 및 활용전략	2013.9
13-058	2013년 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0
13-059	유럽 M&A 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	2013.10

13-060	일본경제 및 한일협력 확대 방안	2013.10
13-061	日 아베노믹스 실시성과 중간점검 및 시사점	2013.10
13-062	세계 경영환경을 바꾸는 혁신 : Reverse Innovation	2013.10
13-063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아세안편)	2013.11
13-064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중남미편)	2013.11
13-065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중동편)	2013.11
13-066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CIS편)	2013.11
13-067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 전망	2013.11
13-068	2014년 지역별 수출입 전망 및 시장여건	2013.12
13-069	떠오르는 신흥공업국, 베트남	2013.12
13-070	기술로 빛은 특화된 제조국, 이스라엘	2013.12
13-071	유럽 제조업 경쟁력 2위, 폴란드	2013.12
13-072	MENA지역의 제조업 MEKA, 이집트	2013.12
13-073	개방으로 눈뜬 제조업, 인도	2013.12
13-074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필리핀	2013.12
13-075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싱가포르	2013.12
13-076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인도네시아	2013.12
13-077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터키	2013.12
13-078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바르샤바	2013.12

####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대만시장에서 한류 활용하기	2013.1
13-002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2013.2
13-004	中國寶庫-양회시리즈	2013.5
13-005	중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400인 (Who's who in China's Leadership)	2013.6
13-006	중국 온라인쇼핑 시장현황과 히트상품 분석	2013.8
13-007	중국 중서부 투자 우대산업 목록	2013.9

####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2013.1

13-00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3.1
13-003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3.1
13-004	2012년도 북한의 대외교류동향	2013.2
13-005	GCF시대에 대비한 세계그린프로젝트 수주방안	2013.3
13-006	국가HR 개선 방안 연구	2013.3
13-007	2009~2012 KOTRA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성공사례집	2013.3
13-008	2013 외국인투자 가이드	2013.4
13-009	201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업체 디렉토리	2013.5
13-010	국별 해외전시회 가이드	2013.5
13-011	2013 이라크-요르단 경제통상사절단 종합 결과 보고서	2013.5
13-012	201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3.5
13-013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2012	2013.5
13-014	엔저가 일본의 對한 투자에 미치는 영향	2013.5
13-015	세계 주요국 전력시장 현황	2013.5
13-016	미얀마 투자실무가이드	2013.5
13-017	2013 외국인투자상담 Q&A	2013.5
13-018	201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3.5
13-019	Global Green Hub Korea 2013 결과보고서	2013.5
13-020	2013 글로벌취업창업대전 결과보고서	2013.6
13-021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수출 마케팅 가이드	2013.6
13-022	이것이 글로벌 명품전시회다	2013.6
13-023	2013 Doing Business in Korea	2013.6
13-024	러시아 프로젝트 진출 가이드	2013.6
13-025	유럽 비즈니스 워크 개막 세미나 (공공조달 진출 전략)	2013.6
13-026	브라질 태양광 프로젝트 예비조사 보고서	2013.6
13-02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요약 번역본 (국제가치사슬: 성장을 위한 투자와 무역)	2013.7
13-029	2013 전략적제휴 안내서	2013.8
13-031	글로벌 중소기업, DNA부터 다르다	2013.8
13-03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력인프라 현황 및 진출방안	2013.8
13-033	201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13.8
13-034	멕시코 투자실무가이드	2013.8
13-035	투자실무가이드 - 네덜란드 -	2013.8
13-036	2012년 글로벌 FDI 동향	2013.8
13-037	2013 U턴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2013.9

13-038	신흥국 제조업 지도 : 어디서? 무엇을?	2013.9
13-039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	2013.9
13-040	글로벌 창업 종합가이드	2013.3
13-041	신흥국 진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Volume Zone & Reverse Innovation	2013.9
13-042	2012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13.10
13-043	러 물류-운송 서비스 시장동향 및 전망	2013.9
13-044	2013년 주요 투자유망국(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미얀마) 투자환경 비교	2013.10
13-045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	2013.10
13-046	터키 투자실무가이드	2013.10
13-047	UN근무 30년 경력자가 들려주는 UN조달 쉽게하기	2013.10
13-048	제 10회 대전 국제 농기자재 및 우수종자 전시회(TAMAS 2013) 디렉토리	2013.10
13-049	2013 Labor Law Guide for Foreign Investors	2013.10
13-050	2014년 해외시장 진출 호부진 품목	2013.10
13-051	국제 CSR 동향분석 및 시사점	2013.10
13-052	2014년 해외 수출유망 품목 및 국가 현황	2013.11
13-053	러시아 바이오매스 프로젝트 예비조사 보고서	2013.11
13-054	2013 외국인투자기업경영환경애로조사	2013.11
13-055	2013 외국인투자기업생활환경애로조사	2013.11
13-056	2013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환경조사 ~15개사 외투기업 심층인터뷰 결과~	2013.11
13-057	Invest KOREA Annual Report 2012	2013.11
13-058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성공시대를 향한 힘찬 첫걸음	2013.12

##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201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1
13-002	2013 중국3대 유망시장 설명회	2013.1
13-003	2013년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	2013.1
13-004	Iraq-Korea Business Forum	2013.3
13-005	Reshoring to KOREA - 국내 U턴기업 지원제도 및 투자환경 설명회 -	2013.4
13-006	2013년 제1회 차이나 커뮤니티 세미나	2013.3
13-007	Global Project Plaza 2013	2013.5

13-008	2013 철도 기자재 조달 플라자 Railway Procurement Plaza 2013	2013.5
13-010	2013년 유럽 주요국 대형유통망 현황 조사	2013.6
13-011	선진 ESCO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6
13-012	Europe Business Week 2013 - 유럽 유통망 진출전략 설명회 -	2013.6
13-013	Europe Business Week 2013 - 유럽 공공조달 진출전략 설명회 -	2013.6
13-014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	2013.6
13-015	2013 국제금융기구(MDB) 조달 설명회	2013.6
13-016	베트남연안국 비즈니스포럼	2013.7
13-017	이란 대체시장 설명회	2013.7
13-018	'중국新도시화 정책과 활용전략' 설명회 Korea-China Biz Plaza 2013	2013.9
13-019	신흥시장 주요 트렌드 및 진출방안	2013.9
13-020	자동차, 프로젝트 분야 진출전략 세미나	2013.9
13-021	ICT, 유통업, 의료서비스업 분야 진출전략 세미나	2013.9
13-022	중남미 새로운 기회: Post Chavez, 그리고 태평양 동맹	2013.9
13-023	CIS 대형 유통망 진출전략 세미나	2013.9
13-024	아프리카 진출 파이낸싱 전략 세미나	2013.9
13-025	아시아 온라인 유통망 진출전략 세미나	2013.9
13-026	신흥시장 투자진출 리스크와 기회 포럼	2013.10
13-027	Korea-Iraq Rebuilding Project Plaza	2013.10
13-028	2013 UN 조달 설명회	2013.10
13-029	Chemical Innovation with Korea 포럼	2013.10
13-030	중국 특화 지역개발 설명회	2013.10
13-031	2016 리우 올림픽 조달 설명회	2013.11
13-032	해외 CSR 사업화 포럼	2013.10
13-033	한국-폴란드 경제협력포럼	2013.10
13-034	Asia Water Development Project Plaza	2013.11
13-035	한국-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2013.11
13-036	주요3국 지재권분쟁 대응방안 설명회	2013.11
13-037	Taking Off Prepared Semiconductor	2013.11
13-038	MENA Project Partnership	2013.12
13-039	Korean Medical Healthcare Industry Insight	2013.12
13-040	선진시장 소비트렌드 및 진출전략 설명회	2013.12

작성자

- ◆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차장
- ◆ 신흥시장팀      안성희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3-069

떠오르는 신흥공업국, 베트남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3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